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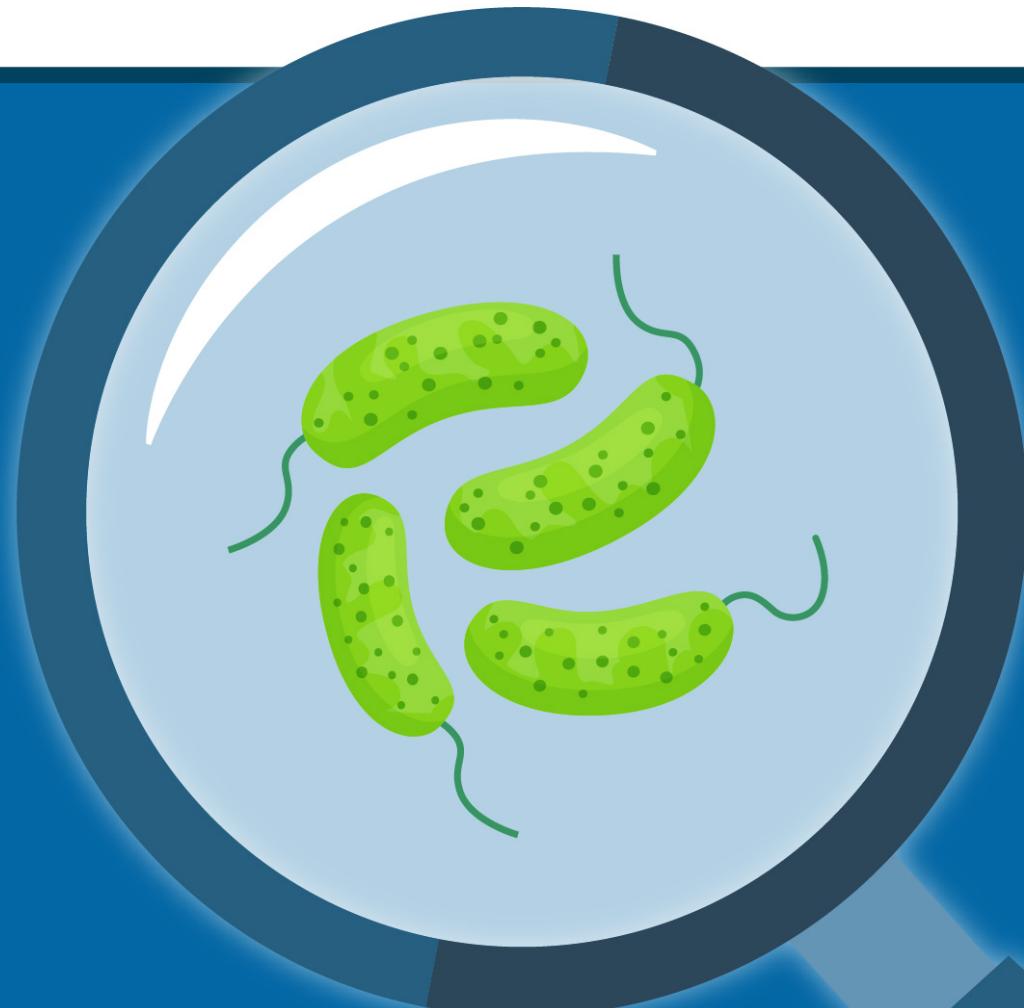


비브리오매립증

함께 예방해요!

비브리오패혈증이란?

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, 갯벌 등 해양환경에서 서식하는 **비브리오 불니피쿠스**(*Vibrio Vulnificus*)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입니다.



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?

주로 5~10월에

- ①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,
- ②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됩니다.
다만,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



비브리오패혈증의 주요증상은 무엇인가요?

발열, 오한, 복통, 구토, 설사, 혈압 저하

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.



발열



오한



복통



구토



설사

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
하지에 **피부병변**이 생기게 됩니다.



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
출혈성 수포가 형성되고,
괴사성 병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증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므로
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①적절한 항생제 치료 및
②적극적인 상처치료(병변 절제 등)가 필요합니다.

치사율이 약 50%내외로 알려져 있으며,
특히, 간 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 등), 만성질환자(당뇨병 등),
면역저하자 등은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해야합니다.



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?

간 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 등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
85°C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
(특히 고위험군은 어패류 생식 피하기)


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
바닷물과 접촉 금지



바닷물 접촉 후,
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

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
5°C이하에서 저온 저장



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,
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로

건강한 여름 보내세요!



Jangseong